

CES 광주관,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특특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한 지원 기업 17개사가 총 432건(29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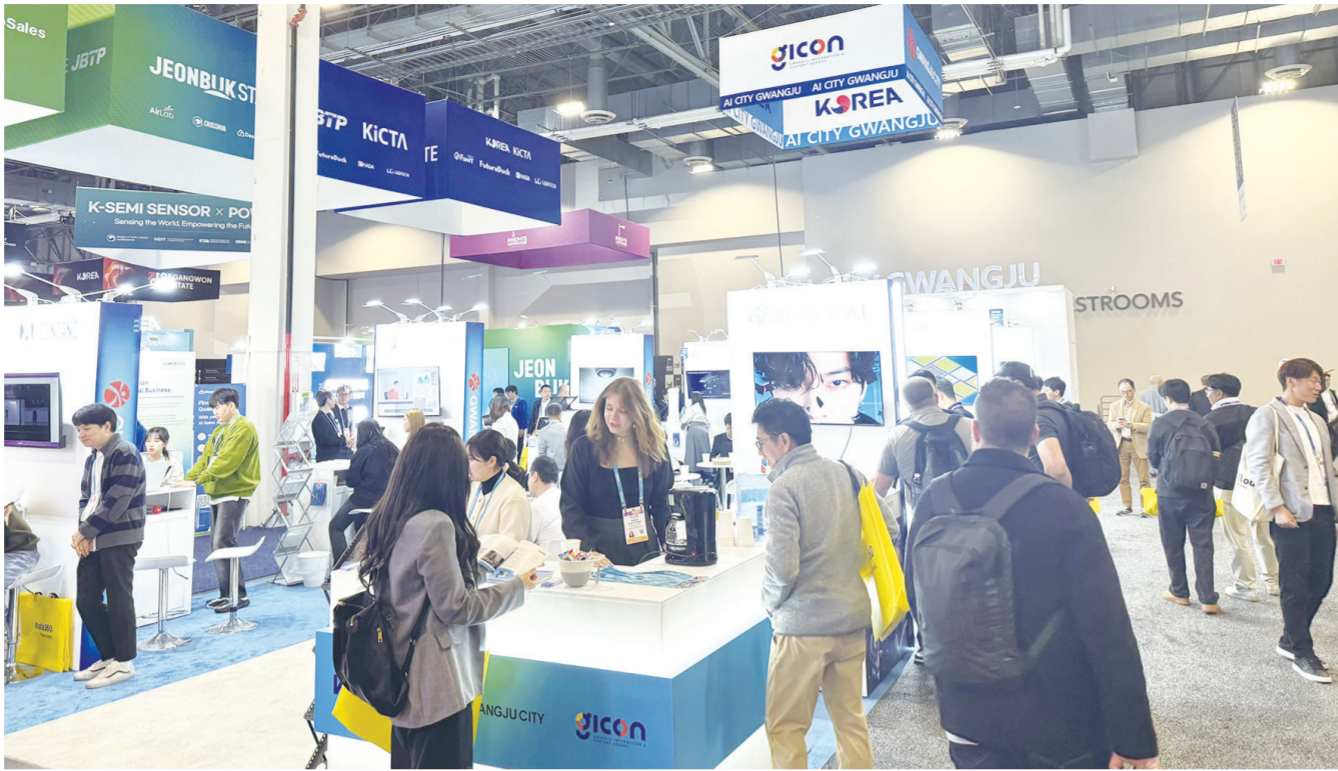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4년 연속 참가한 광주시는 광주 공동관과 K-Startup통합관을 동시 운영하며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광주공동관에는 지역기업 13개사가, K-Startup통합관에는 4개사가 참여했다.

전시 기간 나흘 동안 광주공동관에는 41개국에서 6460명이 방문했다. 광주시와 참가기업들은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신제품·기술 동향을 공유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참가기업 10개사가 기술제휴 등 업무협약 11건을 체결하고 계약 6건을 진행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이탈리아 새싹기업(스타트업)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자사의 보행 경로 안내 소프트웨어를 착용(웨어러블) 장비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투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업체에 태양광 패널 설치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를 공급할 예정이며, ㈜윌터타입은 북미 유통업체 2곳과 여성안전 스마트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메리헨드는 국내외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협력사와 테



광주시 지원 17개사 참가... 수출상담 432건·계약 6건·협약 11건
전시 4일동안 41개국 6460명 찾아 광주 혁신제품기술 등 체험
7개사 'CES 혁신상' 영예... 시 "혁신기업 육성 지속 소통·협력"

이더 공유,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CES 혁신상'은 지역기업 7개사가 수상해 광주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다. 특히 ㈜엘비에

스테크는 올해 신설된 '여행&관광 부문(Travel&Tourism)'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CES 2026의 성과가 지역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로 이

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해외바이어와의 제품·기술에 대한 협의와 실제 수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영길 경제창업국장은 "4년 연속 CES 참가를 통해 광주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 선포

4조6천억 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친환경·고부가·AI 중심 재편

전라남도가 올해를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수소환원제철 중심 설비 전환과 철강·금속산업 AI 전환으로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대응해 고부가 전환 핵심기술과 인프리를 구축, 미래소재 중심 스페셜티 화학산업을 육성한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전력 공급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여수시와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도 '고위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산업 회복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정부와 10대 석유화학 기업 간 나프트분해시설(NCC) 설비 20~30% 감축 합의에 따라 주요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

화학 플랜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25년 1월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2025년 473억 원, 2026년 1천530억 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7천1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공정개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 맞춤형 기업지원'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무탄소 NCC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폴리올레핀 기반 고부가 다공성 소재·공정 기술개발', '여수국가산업단 AX 실수 산업단지 구축' 등 고부가·스페셜티 연구개발과 AI 첨단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CO₂전처리·액화·병커링 허브 실증'과 '선상용 CO₂ 포집 기술개발 실증' 공모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지난해 미국 고율관세 대응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기업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광양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저리융자, 이차보전, 운전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고부가·저탄소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3천983억 원을 들여 금융 지원, 철강 연구개발, 고용 안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I)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기반 대형 철강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과 'SMR용 고온 스테인리스강 합금·제조 기술개발'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 확보에 나선다.

우인 기자

전라남도가 오는 26일까지 50억 원 규모의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용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무안국제공항 재개발 지연 등으로 어려운 지역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용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총 12개 업종이다. 시설자금은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운영자금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 50억 지원

여행업·숙박업 등 12개 업종 1% 저금리... 26일까지 신청

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2월 26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를 실행해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도 자체 최저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 ▲운영자금 한도액 증액(약 1억 원) ▲대상 업종 확대(6개에서 8개 업종) ▲청년기업 지원 강화(우선 선정·지원액 증액) 등의 지원을 올해도 유지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관광진흥기금 저금리 용자 지원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 원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185개 업체에 총 630억 원의 용자를 지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자

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혜택 챙기세요"

연납뎌 연세액의 4.5% 공제... 1월16일~2월2일 신청

동응담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청 후 자동차세 연납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사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김대경 세정과장은 "통상적인 연납 신

청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이지만, 올해는 1월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다양한 신청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높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연납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설명절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19~30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식품 중금속 등 검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전통시장·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실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 즉식·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내용은 ▲보존료·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식중독균 등 유해 미

생물 및 중금속 검출 여부 등이다.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수칙에 유의해 보관·섭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홍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